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서빙고동 이 전 총재 자택 앞에서 '민주연대21' 회원들이 대선 출마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6일 오전 이회창 전 총재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남대문로 단암빌딩 앞에서 진보단체의 출마반대 기자회견이 열리자 출마를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현수막을 빼앗으려 하다 경찰의 저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昌의 귀환’...대선정국 회오리

두동강 난 보수...대선 다자 구도 재편

범여권 ‘위기속 기회’ 단일화 탄력 받을 듯 昌 완주·李와 단일화 여부 막판 최대 변수

이회창 전 총재가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선은 42일 앞두고 정국 구도는 보수진영의 분열과 민주·개혁세력의 총집결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추후 대선 구도는 중도·보수 실용주의를 내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전 총재 중심의 보수연합, 중도·개혁성향의 범여권 세력, 민노당 권영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의 4각 파도가 충돌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 이후 대선 정국을 조망해 본다.

◇보수세력 분열=이 전 총재의 출마는 필연적으로 보수층 분열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이 전 총재의 출마를 둘러싸고 보수층 인사나 보수 외곽단체의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 측과 박 전 대표 측의 충돌로 심각한 내분위기에 휩싸였다.

박 전 대표 측이 '이재오-이박호 사퇴'와 함께 '당권·대권 분리'를 요구할 경우 이 후보 측과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후보가 박 전 대표 측의 요구를 거절하고 박 전 대표가 '침묵'으로 이 전 총재의 손을 들어 줄 경우 한나라당과 보수진

영은 사실상 두 동강 나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는 이회창 전 총재의 수구·보수 연합으로 규정하고 중도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차별화에 나서는 한편, 이 전 총재의 차떼기 전력과 대선자금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전 총재는 전통 보수층을 겨냥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념적으로 우파인' 자신만이 '좌파정권 종식'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논리와 함께 국민중심당, 이수성 총리 그룹과 함께 보수 대연합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개혁세력 결집=범여권은 "역사의 코미디" "시대흐름을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일제히 비난했다.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측 김현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의 경제부패가 이회창의 정치부패를 불러들인 것"이라며 "이는 역사의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시대착오적인 반공 구호를 앞세운 극우파의 등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범여권이 일제히 총공세를 펴고 있지만 각 후보 진영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이 전 총재의 출마가 이명박 후보 일변도의 대선관도를 흐드는 '기회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명박 대 이회창'의 보수주자간 대결구도로 전환시켜 범여권 주자들을 정국의 중심부에서 밀어내는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상황인식에서다.

그러나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던 범여권은 이 전 총재의 출마가 현실화된다면 역전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후보단일화에 나서며 막판 민주·개혁세력 결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범여권에서는 이 전 총재의 참여로 대선의 이슈가 '경제'에서 '이념'으로 이동하면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이미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이회창에 맞서는 '반부패연대'를 제안했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정동영·권영길·문국현의 3자 회담으로 화답했다. 여기에 민주신당과 민주당도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활발한 물밑 접촉을 받고 있다.

특히, 범여권에서는 이 후보와 이 전 총재를 똑같은 부패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번 대선을 '부패 대 반부패'의 대결 구도로 몰아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수세력 단일화 여부=이 후보와 이 전 총재의 단일화는 범여권 후보단일화 효과를 일거에 얻을 수 있는 대선 정국의 카-포인트다.

이 전 총재가 의외의 역풍으로 중도 이하하거나 이 후보가 BBK 주조작 수사에 의해 지지율이 급속하게 빠질 경우, 보수세력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대선은 삼각계 끝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보수세력 단일화는 범여권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총재의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릴 경우 단일화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서로 당선 가능성을 자신하면서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난달 중순부터李후보 정면 공격 정계 은퇴 상태에서 '속성 도전' 감행

■ '고심'서 '출마 선언'까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히 떠돌던 '이회창 출마설'이 결국 현실화를 목전에 두게 됐다.

이 전 총재는 과거 두차례의 대선에서 각각 1천만표 이상을 득표한 저력을 지녔고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출신인 데다 현재 대선후보 여론 지지율 2위를 달리는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대선출마는 대선 정국에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설은 그간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작년 12월 경희대 특강에서 이 전 총재가 "상유십이 순신불사(尙有十二 舜臣不死),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고, 이순신이 죽지 않았다고 했다. '순신불사'의 어귀를 떠올릴 때마다 전을 같은 감동을 느낀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반신반의 속에서 '창(昌)의 귀환'을 점치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전 총재는 지난달 8일 이명박 후보와의 오찬에서 이 후보의 당내 화합 의지와 대북 안보관에 대해 우려를 내비

친 데 이어 19일 국가디자인연구소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국가지도자가 정직하지 못하고 법치주의에 역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은 국가에는 재앙"이라며 이 후보를 정면 겨냥했다.

이 때부터 이 전 총재는 '작심한 듯' 외부 행보를 이어갔다. 24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보수단체가 주최한 대중집회에 대선 패배 이후 5년여만에 처음 참석해 "이 몸을 던져 한국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총재는 자신의 대선출마 여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지난달 29일부터 자택에서 '침거'했고 지난 2일에는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지방의 한 친지 집으로 가 '최종 장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남 예산군 산성리에 있던 이 전 총재의 선대묘 9기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명당'으로 알려진 근내 다른 산으로 이장된 점, 그리고 이 전 총재측이 올 초부터 동영상 UCC업체인 판도라TV에 선거용 UCC를 게시할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점 등은 이 전 총재의 출마가 치밀한 사전 준비 끝에 나온 게 아니냐는 추정을 낳고 있다. /연합뉴스

정계 은퇴 뒤집을 명분 제시가 관건

■ 대권 3수 성공할까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생애 세 번째 대권도전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이 전 총재의 정계복귀 선언은 지난 2002년 대선패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한 지 5년 만의 일이다. 한마디로 '패자부활전'을 통해 그의 정치인생에서 대미를 장식해 보겠다는 집념이 엿보인다.

이 전 총재가 정계에 발을 내디딘 것은 지난 96년 2월, '대쪽 판사', '성역을 타파한 감사원장', '소신 총리'라는 소리를 들은 그는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정계입문 후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당시 김대통령(YS)의 경고에 맞서 "비민주적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고 정면 저항한 끝에 정계 입문 1년 11개월만에 제1당 대선후보 자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두 아들의 병역 문제로 인한 혹독한 '검증' 속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1997년 15대 대선에서 불과 39만표 차이로 국민의회의 김대중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그는 98년 8월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제1야당 총재로 복귀한 뒤, 대세론을 확산시키면서 2002년 대선 재수의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불운은 또 한번 들이닥쳤다. 대선 후보 선출 뒤 '병풍' 공세 속에 대선 직전 이뤄진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와 국민승리 21의 정몽준 후보간 후보단일화 구도에 밀리면서 또 한번 패배의 쓰라림을 맛봐야 했다.

이 전 총재의 5년만의 정계복귀 성공 여부는 그의 출마 명분이 "이제 정치를 떠나고자 하며, 깨끗이 물러나겠다"는 2002년 12월의 정계은퇴 선언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뒤집을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특히 97년, 2002년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지는 이번 대선 출마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10년만의 정권교체'를 기치로 내건 보수진영의 분열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가 최대숙제이다. 20%를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전 총재의 지지율이 그대로 상승세를 탈지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연합뉴스

청와대 언급 자제속 비판 기류

출마 선언직후 입장 밝힐 듯

청와대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7일 오후 대선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으나 내심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고, 출마의 변으로 어떤 이유와 명분을 내놓을지가 확정되지 않

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이 전 총재의 '선택'에 대해 미리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우연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강건너 불보듯' 무대응으로 넘어갈 것 같지만은 않다.

청와대 내부 기류는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 전 총재의 '대선 무대' 복귀를 다소 냉소적인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재가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 청와대로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007. 11. 8
국가기획예산부 균형발전정책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추진팀
▶ 행정타운 조성사업 ▶ 문화도시 조성사업 ▶ 생활기반 조성사업 ▶ 공공주택사업